

반부패 ·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기자 브리핑 통해 “청렴군산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 기여” 강조

군산시가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원식 부시장은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청렴 추진체계를 설명하며 올해 비전인 ‘청렴군산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 기여’를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공직자 반부패 역량강화, 소통으로 신뢰받는 내부행정 구현,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과 20개 세부과제를 정해 연중 상시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백화점식 정책 추진 보다는 취약분야에 대한 확실한 핀셋형 시책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직원을 뇌리에 새겨질 수 있는 청렴 시책을 진행하겠

다”고 덧붙였다.

2024년 군산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은 기존 제도와 함께 신규 제도를 대폭 확충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제도는 퇴직(예정)자가 함께 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다. 퇴직일이 가까운 재직공무원에게 꼭 알아야 할 윤리제도 안내 및 퇴직자 윤리서약서를 받아 퇴직 후에도 함께 청렴한 군산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3년도에 진행했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에 이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실 재직자의 인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연고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고 이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공무원이 양장서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청렴 리더십 발휘에 양장서는 고위공직자 청렴 릴레이 캠페인도 새롭게 준비중이다.

청렴 릴레이 캠페인은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고 국별 토론과 추진방법 논의를 거쳐 대내외 캠페인 실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캠페인이 끝나면 다음 고위직이 새로운 캠페인을 이어가는 형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과 이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 컨설팅도 신설된 제도 중 하나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중국 최대 중국동포 특화식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연길(연지)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도시로서 위상을 다졌다.

중국 연길과 식품산업 ‘맛손’

익산시 대표단, 중국 연길시 답방... 무역 · 문화 등 우호 협약 체결

익산시가 중국 최대 중국동포 특화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연길(연지)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도시로서 위상을 다졌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시장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익산시 대표단은 연길시장의 초청으로 지난 13일 연길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상호교류와 식품산업, 경제무역,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연변주정부 방문단이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익산의 식품 산업을 견학한 데에서부터 시작했다. 식품산업의 메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도시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양 도시 식품산업 증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연길시가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항일 투쟁과 한국 독립투사의 자취가 남아있고 중국동포 인구가 많아 관

판에 한글을 사용하는 등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도 불린다. 백두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 경치와 역사 문화유적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발하다.

오현철 연길시장은 “먼 걸음 해주신 정현을 시장님과 최종오 의장님 등 익산시 대표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연길시와 익산시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따뜻하게 환영해 준 오현철 연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연길시와 함께 앞으로 식품산업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나가며 각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출장에 나선 익산시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중국 연길시와 청도(청다오)시를 방문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 개최

군산시,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 · 개선 방안 모색

군산시는 한국법정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지킵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성승제 한국법정정책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발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적하

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을 고려할 것을 중분위에 제안했다.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할 경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 공주대학교 정규 교수, 한밭대학교 최성환 교수,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참여하여,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학술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박차... 금강농산 철거 시작

익산시가 내년도 사업 완료 목표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잠잠마을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밝혀진 옛 금강농산 공장 건축물 일부 철거를 시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난 2022년 선정된 국가사업으로, 57억 원을 투입해 함라면 신목리 잠잠마을 일원의 자연 생태계를 있고, 그 기능을 향상하는 환경 복원사업이다.

익산시는 당초 옛 금강농산 공장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일부를 보존해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건축물은 비료공장의 핵심시설이 있었던 공간으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환경 교육공간과 환경오염 사고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장에 감리자를 임명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점검을 진행

하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일부 철거가 완료되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명소로 탐비움을 하기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훼손된 생태지역 복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아픔을 딛고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질 실시간 측정장비시스템... 감시 강화

군산시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수질변화 측정장비시스템을 현재 본격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구축한 수질변화 실시간 측정장비시스템은 작년에 구축했으며, 군산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군봉 의 7개 배수지(나운·대야·오식도·신시도·해망·선양·신풍)에 5개 항목(pH, 수온,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탁도)의 수질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 수돗물 공급과정의 전반적인 수질의 실시간 감

시·강화가 가능해 군산시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3월에 개최됐던 2024년 군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됐던 도시지역 수질관리 문제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 사용자들의 권리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등의 수질관리 및 대상시설·검사지점 위치 선정(변경), 자문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인 대학교수, 여성단체, 지역 언론인 및 시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2024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익산시가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 숙달을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훈련 전 민방위 유도요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훈련 참여자들은 공습경보음을 시작으로 대피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했다.

이어 대피소에서 미사일 공격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8월 전 국민 참여 대피훈련을 대비한 사전훈련으로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선제적 병해충 방제... 시민들 큰 호응

군산시가 도심지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연일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가 이른 방제에 나선 이유는 자연에 급증했던 미국 흰불나방 등의 돌발병해충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돌발병해충이 도심지 가로수 및 공원 등의 생활권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갹이먹어 수목의 생육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상가 내부까지 침투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만큼 올해에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에도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이 일찍 활동하고 있고, 개재 수도 급증한 것으로 예상해 조기에 집중 병해충 방제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군산시는 생활권 내 병해충 발생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자 올해 4월 말부터 병해충 예찰을 시작했으며 5월 초부터 백토로 가로수 방제를 시작으로 해충이 동면기에 접어드는 10월까지 가로수 공원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